

학교 현장 생생한 목소리 청취

서 교육감, 국·공립 일반고 교장 대상 정책 간담회 14개 시·군 초·중등학교 교감단 협의회도 열어

서거석 교육감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층 회의실에서 '교육감과 함께하는 교육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도내 국·공립 일반고 학교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너

어,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학교 관리자와의 소통을 통한 현장 맞춤형 교육 정책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30여 명의 학교장이 참여해 고교학점제의 내실화 운영 방안, 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운영, 대입진학

지도 지원,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교원인사 정책 등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서로 공유했다. 서 교육감은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학생들의 진학지도에 대해 향후 대입지원단을 더 증원해 진학전문가를 많이 양성하고, 다양한 유형의 교사 진학지도 연수도 확대해 학교의 진학지도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장선생님들의 생생한 학교 현장 이야기 하나 하나가 모두 소중하

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실현하는데 교장선생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 교육감은 이날 14개 시·군 초·중등 교감단 협의회를 개최했다. 21일에는 사립학교 운영 현황을 살피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사립 일반고 학교장과 교육정책 간담회를, 14개 시·군 초등·중등 교장단 협의회도 가질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서거석 교육감이 19일 전북도교육청 회의실에서 '교육감과 함께하는 교육정책 간담회'를 가진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듀테크 활용 미래교육 방안 논의

서 교육감, 정보화교육 수업전문가와 간담회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9일 5층 회의실에서 서거석 교육감과 정보화교육 수업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화교육 수업전문가 의견 나눔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보화교육과 에듀테크 기반 교육환경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고 에듀테크 활용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강승환 교사(대야남초)는 에듀테크 활용 및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 보급과 교원의 수업 역량 강화 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서 교육감은 "교원의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해 도교육청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교육지원청에서는 에듀테크 소양(기초) 교육을 그리고 교

육연구정보원에서는 활용(심화) 연수와 지원단 전문가 연수를 통해 에듀테크 기반의 교원 연수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에듀테크 활용 가이드북 개발 △에듀테크 수업 활용 사례집 보급 △에듀테크 핵심지원단 25명과 각 시·군 지원단 10명씩 조직 지원 △교과연구회 지원예산 증액 △에듀테크 공로자 국외연수 지원 등도 약속했다. 이어 정진욱 교사(전주우이중)는 학생 1인 1스마트 기기 보급을 하게 되면 학교에 스마트기기 관리 업무가 증가하게 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 교육감은 "스마트 기기 보급은 상시 온·오프라인 융합 교육과 에듀테크 기반 활용 교육 등 미래교육 체

제 전환을 위해 추진하는 만큼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스마트기기 보급에 따른 관리계획을 촘촘하게 계획하고, 분실 및 파손 대비 보험 가입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조영상 교사(신외초)는 "정보화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과의 면담을 추진한 것만으로도 학교 현장에서는 큰 변화를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지금 학교는 미래교육, 에듀테크, 디지털 환경이라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점에 있다"면서 "정보화교육 선생님들에게 이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그 중심에서 서서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미래 수소에너지 혁신적 연구 필요

우석대, 수소연료전지 국제컨퍼런스 개최

우석대학교 총장 남천현(왼쪽)이 세계 수소연료전지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싱크탱크를 자임하고 나섰다. 19일 우석대에 따르면 전북지역 수소연료전지 분야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세계 수소연료전지 산업의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제7회 수소연료전지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이 아닌 대학 차원에서 미래 그린 에너지산업의 대안으로 떠오른 수소연료전지 산업 발전을 꾀하는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날 문화관 5층 화상 회의실에서 열린 컨퍼런스에는 남천현 총장과 로랑 안토니(Laurent Antoni) IEC TIC06(수소연료전지기술) 의장, 이흥기(에너지공학과) 교수 겸 IEC 연료전지 모빌리티 위원장을 비롯해 미국·일본·프랑스 등 7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국의 대표단장을 역임하고 있는 석학과 국내 전문가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컨퍼런스는 이흥기 교수 겸 IEC 연료전지 모빌리티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남천현 총장의 환영사와 전문가 주제 발표 및 패널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로랑 안토니 의장은 '프랑스

의 연료전지 및 수소기술 개발'을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서 프랑스의 수소 정책 및 로드맵을 소개하고, △산업 탈탄소화 △중장비 차량을 위한 청정 수소 생산 △미래 수소 에너지에 대한 혁신적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하시모토 노보르(Hashimoto Noboru) 야마나시대학(Yamanashi Univ) 교수는 '일본의 연료전지 및 관련 기술 개발에 대해 발표하며 "탄소 중립과 RE100 실현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수소 기술 활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북지역 녹색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차세대 전북테크노파크 팀장이, 이흥기 교

수는 '원주의 수소연료전지 개발 현황'을 조망했다. 남천현 총장은 "그린수소와 연료전지 상용화 시장 확대에 따른 연료전지 기술의 기여도가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국제표준은 연료전지 상용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가 연료전지 시장 상용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우석대학교 지역혁신센터와 IINC 3.0 사업단이 주관하고 전북도·완주군·국가기술표준원·수소융합라이언스(H2Kara)가 주최했다. /정은성 기자



서거석 교육감은 19일 도교육청 5층 교육감실에서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정광현 학생에게 한국기록원 기록 증서를 전달했다.

'KRI 기록보유자 되다'

치즈과학고 정광현 학생, 식품가공기능사 등 최연소 최다 한국 식품 국가기술자격 취득

도내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정광현 학생이 최연소 최다 한국 식품 국가기술자격 취득으로 한국기록원(KRI) 기록보유자가 돼 화제다. 이에 서거석 교육감은 19일 도교육청 5층 교육감실에서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정광현 학생에게 한국기록원 기록 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치즈과학고 조리과학과 3학년 재학 중인 정광현(18) 학생은 고등학교 입학 후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27개월)까지 총 10개의 식품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해 한국기록원에 기록 도전을 했다. 이에 최연소 최다 한국 식품 국가기술자격 취득 기록보유자로 인정받았다. 정광현 학생이 취득한 자격증은 식품가공, 떡제조, 제과, 제빵, 복어조리, 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조주기능사 총 10개다. 이는 1차 이론시험과 2차 실기시험 모두를 합격해야 하는 국가기술자격 취득 시스템상 27개월에 1개씩 취득한 경이로운 기록이다. 이에 따르면 이번 기록은 한국치즈과학고의 식품, 조리 분야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 교육과정까지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의 탐과 노력, 그리고 아버지인 (주)진한(주)B 정승관 대표의 기능교육에 대한 열정이 이뤄낸 값진 결과물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정광현 학생의 노력과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코로나19로 전문교과 실습수업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다양한 직무능력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낸 것이다. 앞으로도 지역산업에 특화된 전문기술인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기술보증기금 등과 탄소중립 역량 강화 협약 체결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김상진)은 지난 17일 개방형 혁신 및 탄소중립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학협력단과 기술보증기금 (주)전주대학교 기술주회사 그리고 주식회사 유닉이 기술이전·사업화 및 탄소중립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의 창업기업, 기술주주 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대학 내 우수 연구 인력들이 기술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우수 기술창업 기업에 기술보증기금에 추천 △기술이전 수요정보 관리, 중개활동 및 결과 공유, 기타 합의로 추진되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혁신기업에 기술금융과 비금융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성과공유제 교육·협약 간담회

전주대학교 BI(Business Incubator, 창업보육센터)는 지난 18일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제 교육 및 협약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제란 창업기업의 대표자와 근로자 간의 경영 성과를 공유하거나, 공유하기로 협약한 중소기업에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하고 정부 정책 우대를 통해 기업 성장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성과공유기업 우대혜택으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신청 자격 부여, 중소기업지원사업 선정 평가 시 일자리 평가 항목에 최대 30점이 반영된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 창업보육협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 입주기업 (주)제이스 에코 외 14개 기업이 참여했다. 교육 후 협약서를 받아 성과공유기업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전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중소기업부에서 지정받은 센터로서 매년 중소기업부에서 전북도청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7년 이내 창업기업을 입주시켜 약 5년간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상우 센터장은 "금리인상 등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지만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길 바라며, 입주기업의 성장을 위해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교육감 공약관리위원회 구성

내·외부 총 37명으로 구성... 위원 위촉장 수여

서거석 교육감의 효율적인 공약 이행을 관리하는 공약관리위원회가 꾸려졌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2층 강당에서 제19대 전라북도교육감 공약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공약실천계획을 심의했다. 공약관리위원회는 유치원장, 현직 교사,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방과후 강사, 농업인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위원 22명과, 교육국장, 행정국장 등 교육청 내부위원 15명 등 총 37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공약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교육감 공약사항 실천계획과 이행실적 심의, 변경·폐기 사항 및 대안 제시 등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적극적인 공약관리위원회 활동을 통해 공약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평가해달라"면서 "학생중심 미래교육이 교육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전북교육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태권도학과, 시범단 활성화 사업 선정

2년 연속으로

전주대학교 태권도학과가 2022년 태권도시범단 활성화지원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태권도학과에서 유일하다. 이 사업은 태권도의 기술을 선보이는 시범(示範)을 보다 업그레이드해 '문화예술'로서 태권도공연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자생력 있는 차별화된 태권도공연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대학 태권도학과는 2022년 9월 15일 세계물류올림픽축제를 시작으로 '우리들의 영웅이야기 시군, 무훈(武魂)' 공연을 12월까지 진행하고 있다. 아숙경 교수(태권도시범단 지도교수)는 "전라북도 세계태권도의 메카 지역인 만큼 '문화공연'으로 태권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재학생과 졸업생을 중심으로 태권도공연예술단인 '싸울아비 공연단'을 2018년에 창단해 공연예술로서 태권도 콘텐츠를 창작하고 있다"며 "매년 지역민과 함께 향유하는



태권도 공연물을 제작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대학교 태권도학과는 2022 무주 태권도 문화페스티벌 팀 경연활동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2019년부터 현재까지 출전하는 모든 태권도대회에서 입상한 태권도 시범의 명문 학과다. 특히 오는 23일 오후 5시 전주한옥마을 전통문화연수원에서 세계무역을 주도하는 한인 무역인을 초청한 행사에 4차 공연을 펼친다. /정은성 기자

손 씻기·실내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